佛教
第三十八號
交換

口業

사람의 面門七竅로보아도 眼、耳、鼻가모다 開竅식이고 오직입(口)만이 一孔인데다가 眼과耳는 收納뿐이고 吐出하는것이 입스더 鼻는비록 出入息이 다있다할지라도 單純한 息뿐임으로 出入이 別로 없지마는 입은 呼吸할이 아니요 鼻의 職責보다못지아니한데다가 또 食物의 收入을맡고 또 言語의 經路를맡아서 물리가 진대로 耳、鼻와 맞먹을 大한 責任을 負荷하고 보면 한것에 아니지마는 周圍에서 맡는 委託과 注意가 또한 重하다하지아니할수가 없다 그만한 責任을 大한 職務에 맞는 속 相當한 位에 있고 知平한 聞을 맞지 지 않어야 한것이다 그러치마는 功德을 論評하는 데에는 이로 發揮 입시 가만이 있서서 드러오는 소리(聲)나 取捨하는 귀(耳)와 한가지 一手二目 功德맞게 特別한 주 輪功을 못지 못하겠고 罪過를 論評할 際는 코、意가 主犯이 되고 口는 從犯에 不過하여 도 不拘하고 코、意에는 다 各各 三罪씩 罪名을 排成치 않고 口에만 四罪이라는 罪案을 成立하게 되니 法理上에 있서서 實 太無情 太 苛刻한 判定을 입 (口)스사로 가 嗚寃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입(口)구멍에 嗟嘆한 申에도 歐罵하고 勃然한 一聞에 誣 이만 로 是非曲直을 分析치 않는 것이 입스 인서도 稱 俄、呼怒、 苟且가 입은 天性 입을 일 수 있다 더욱이 食物 一點 만 注意가 不周到하면 音(聲)은 病 才 입 病 音을 싸고 衷言 一節 만 錯誤하 면 뜻(意)은 誤 悅을 이지 못해하고 徹頭徹尾를 破壞 만치 않 壯하면 相對者는 接 鋒相對하 려 함이다 은 것 宣 怖을 보다하여 달라는 眞面에 은 것 秘 密을 보다 직 하 달라는 것은 眞實 보 無理한 注文에 아니 할 수 입다 九 百 餘 에 다 은 것은 다 됨지라도 입(口)노 못한 은 할 수 입는 事情이다 라는(입)口에 스스로 冤 屈을 부르짖지 않음으로 것 (舌)이 입(口)을 代 辯하 야 한 번 綱 略하는 바이다 입아 입아(口구口구)! 그러나 毘耶離城과 少林寺에 드러가기 前에는 姿 婆의 教 綱인 言 聲 即 百 語 을 아니 할 수 입다 오 직 眼、耳、鼻、身、意 들이 그 입을 이 나 입아 주기를 바란다.